

magli

격 려 사



총 장 강 신 명

오랜 탑을 쌓은 숭대극회가 세계적 실존 철학의 거두이며 소설가인 A. 까뮈의 작품 “까리굴라”를 택했습니다.

수준높은 공연을 통해 종합예술로서 표현 된 또 하나의 걸작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면학에 전념하는 이론만을 떠나서 자기 표현의 기술을 연마하고 달성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 더 활달한 사회생활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명의 타성을 잠겨 퇴화해버릴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며 작품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경험을 배우면서 보다 참신한 사고로 우리에게 현명한 길을 안내해 주는 역활이 됩니다.

아직도 배움의 단계에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는 준비로 작품속에서 종합예술의 극치를 이룰 문학, 미술, 음악, 무용의 복합을 조화시키는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예술에 표현된 참된 결과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까리굴라를 준비한 극회 여러분들의 노고와 자리를 같이해 사랑의 숨결로호흡해 줄수 있는 숭전인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공연이 되어 지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1982 . 6 .

극회장의 변 (辨)



김 인 보

26

·우리는 뛅니다.
끌도 없고, 어쩌면 필요도 없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뛰어 갑니다.
중간에 뒤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곧장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끝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몹시 궁금합니다.

끌일지도 모른다는 그 곳에 도착했을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외쳐봅니다.
“우리는 또 뛰어야만 합니까?”

이번 작품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우리 전 극회원과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도속에 무사히 작품을 올리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이 작품이 오를 수 있도록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획의 변(辨)



음 태 웅

시작도 끝도 없는 긴 여정의 중도에 서서 바라보다.

정육점의 세 토막의 고기덩어리처럼, 유리 상자 안의 한 마리의 인형처럼 새장안에 갖혀 생각을 잊 어버린 인간들,

우리의 흔히 쓰는 말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한 인간들이 벌이는 한 막의 연극은 살기 등등 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포용과 활동과 사랑이 있다.

수 많은 가운데 한 가닥 기대속에 내 마음속에 싹을 심은 것.

이렇게 나의 뇌리에 锐利한 비수를 꽂고 멀리 달아 날 듯 주춤거리고 있다.

우리 인간은 외롭다.

저 위대한 씨이저도 그의 총아의 배신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넬바의 올빼미와 헤라클레스의 힘이 있다.

젊은이여!

젊은 가슴을 식힐 수 있는 푸르른 이상을 가져라!

젊은 정신을 지탱할 수 있는 원대함을 가지자!

이 세상 모든 음악의 멜로디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다.

젊음이여!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준비를 하라!

1982. 6. 9

“作品研究”

‘까뮈’의 作品은 自殺, 殺人, 暗殺 등 항상 ‘죽음’이 그것을 지배한다. ‘까뮈’는 “죽지 않기 위해서, 곧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한다. 까리굴라의 한 등장인물이 “목숨 하나 잃는다는 것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요, 그러나 이 삶의 意味가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들의 존재이유가 소멸해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요”라고 말함은 곧 까뮈 자신의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삶 속의 죽음, 또는 죽음 속의 삶이 까뮈의 索의命題이다.

“까리굴라”는 1938년 ‘까뮈’가 이 작품의 주인공 로마 皇帝와 똑같은 25세일 때 썼여졌다.

演劇은 까리굴라가 사랑한 그의 누이 드리쥬라의 죽음으로부터 3일 후에 일어난다. 이때로부터 그의 암살까지 이 젊은 황제의 행위의 동기는 不可能에의 追跡이었다.

人間이 죽음에 직면할 때 不條理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이世界는 과거처럼 친밀한 world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오히려 태연하고 무관심하게 보이는 world에 대하여, 스스로 고독감을 느낀다. 不條理의 감정이라는 것은 有限的 人間存在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無限의 存在와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며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 人間에게 닥쳐올 때 초월적으로 비약하지 않는 人間이 自然的世界에 대해서 느끼는 懸隔感을 말하는 것이다.

까리굴라는 人間存在의 限界를 菲사적으로 超越하고자 한다. 그는 不可能를 향한 맹렬한 추구를 한다. “달을 제 것으로 만드려고”도 한다.

까리굴라가 귀족과 다른 점은, 까리굴라는 죽음을 認識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意志를 가졌고 귀족들은 그 죽음의 문제에 수긍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까리굴라는 그의 권

력으로 자기에게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삶에 복수한다. 그는 被創造物로서의 입장을 超越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황제의 권력을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 즉 人間存在의 문제에까지 침해시킨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한 등장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안전한 상태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의견과 같습니다. 일찌기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던 이상한 思想이 갑자기 현실 속에 침입해 들어와 더욱 그들이 빈번히 심장에 단도를 꽂듯이 위협해 오는 그런 世界에서는 대부분의 人間들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 폐하게서는 해로운 방해물이십니다.”

그들은 황제의 暗殺을 계획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反抗하면 할수록 더욱 다가오는 人間의 限界 앞에서 绝叫한다.

“까뮈”는 그의 序文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의 真實이 運命에 대한 反抗이라면 그의 잘못은 人間을 束縛하는 것에 대한 否定에 있다. 人間은 그 자신을 破滅함이 없이 모든 것을 과파할 수는 없다. ‘까리굴라’는 高次元의 自殺에 관한 얘기다. 이것은 가장 人間의 이야기이며, 가장 悲劇의 失手의 이야기이다. 자신에 대한 충실로 인해 人類에 대하여 불충실하게 된 ‘까리굴라’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것도 그 자신을 救援할 수 없으며, 또 아무도 他人을 희생한 代價로 自由로 와질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 Norris Houghton, ‘現代演劇入門’

• 河東軒 ‘까뮈解説’(同和出版公社, 世界의 文學大全集)

• Erich Fromm, ‘惡에 관하여’ (The heart of man)

연출의 변



지 숙

가진 것 없는 者가
가진 者들에게
“삶”을 쪼개어 주려하니
고통만 크다.

허청거리며 하루를 살고,
내 속엔
他人이 숨어들어와
마비된 思考는 그의 것이다.

회지도
검지도 못한
회색의 절망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어리석음은
스물두해 살아 온
時間을 과과한다.



끼리굴라 철학3 홍려석



시베용 섬유1 백윤현



세조니아 사학2 김종언 에리꽁 공교1 박경근



케레아 문리1 김양민



(귀족 1)까슈스 전자 1
이재영



메레이아
재무장관
시인 3
문리1 오정렬

(노귀족)빠뜨리큐스
영문2 신동화



(귀족 2)레삐듀스
산공1 유영록



메레이아
재무장관
시인 3
문리1 오정렬

CAST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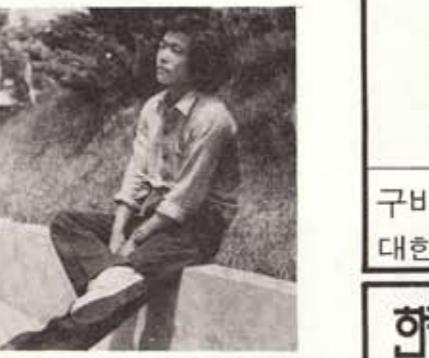
위병 2 법경 1 이원우



시인 2 문리 1 김희명



위병 1 전기 1 김창규



시인 1 문리 1 김선중

만국공통의 국제학생증 (I.D.CARD)

유학? 해외연수? 문화교류?
세계 어느곳에서나 학생신분을 보장받고 각국의 모든 제도화된
학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출국하는 학생들
의 필수적 휴대품!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L'ESTUDIANTE INTERNACIONAL ESTUARDO - CARTE INTERNATIONALE DE DOCUMENTS
24 JAN 1980 0000
RIM NO A4
YABJIN 811726
KOREA
STUDENT
DONGKUK UNIV.
istc 1403
KOREA INTERNATIONAL YOUTH & STUDENT EXCHANGE SOCIETY
SEoul 28/04/81
WYNAK
istc

구비서류 : 여권사진 2매,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사본1통
대한민국발행기관 : 한국국제청년학생교류회

한국국제청년학생교류회 KIYES
KOREA INTERNATIONAL YOUTH & STUDENT EXCHANGE SOCIETY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828 국제청년회관, 전화 : 778-2188-9

지도 :

지도에 표기된 주요 건물과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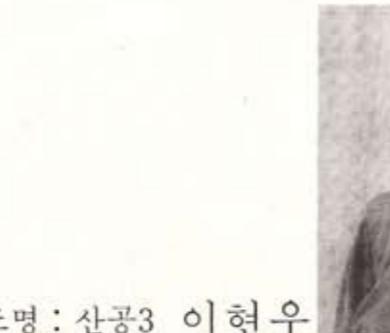
- 종근당빌딩 (종근당 Building)
- 국제청년회관 2층 (한국국제청년학생교류회) (International Youth & Student Exchange Society, 2nd Floor)
- 버스정거장 (Bus Stop)
- 서대문 (Seodaemun)
- 서소문 (Seosomun)
- 마포 (Mapo)
- 신촌 (Sinchon)
- 아현고가도로 (Ahyeongogaero)
- 신촌 ← (Sinchon ←)
- 마포 ↓ (Mapo ↓)



조연출 : 산공2 이영구



무감 : 국문2 이찬수



조명 : 산공3 이현우



분장 : 전산2 장성수



진행 : 산공 2 전희식

동연연도

연	제	작	품	명	출	입	연	제	작	품	명	출
1921년 6 : 13		연홍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미국 노예의 탈"					1975년 14	"미니만과 밤화벌"	Max. Frish		안	
1923년 7 : 7, 13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후" "기계인간" 엘噎청년회 주관					1976년 2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신입생환영)		김	
1923년 7 : 28, 29		"소인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976년 15	"인터뷰"	장·클로드·반·이델리 作		김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 대 주			1976년 16	"범"	장·클로드·반·이델리 作		김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베스코 作	이 대 주			1977년 3	"춘 텐"	윤대성 作(신입생 환영)		안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1977년 17	"EQUUS"	피터·웨커 作 새정식 기획		김	
1970년 5 : 15		"甦者와 캠론" by John Millington Synge		안 영재			1977년 18	"EQUUS"	피터·웨커 作 방영철 기획		김	
1970년 10 : 28, 29		"승부의終末"	샤류엘·베케트 作	김 양기			1978년 19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김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건널목 삽화" "담배해독에對해사" "황금단지"(로마극) "고도를 기다리며"	을조영 作 안분·체홍 作 한 열세 유구 배 자현재	정종화 수정서 한열세 유구 배 자현재			1978년 20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10 : 24	피터·웨커 作 민승기 기획		김	
1971년 11 : 4, 5		"서격병의 그림자"	산·오키이시 作	자현재			1979년 4	"꽃"	이강백 作(신입생 환영) 한선 기획		성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펜터 作	한영세			1979년 21	"한강2979"	김영덕 作 정제호 기획		이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고봉인			1979년 22	"초 분"	오대식 作 이정일 기획		황	
1973년 10 : 25, 26, 27		"날" "기도"(소극장)	H. 펜터 作 F. 아라벨 作	자현재			1980년 23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11 : 5, 6	브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법 기획		박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 카뮈 作	정종화			1981년 5	"ARIA DA CAPO"	E. St. V. Milla y 作 이영환 기획		오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봄"	W. Arving 作(신입생 환영)	김홍수			1981년 24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 作 이종규 기획		황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체"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1981년 25	"달맞이 꽃"	김병중 作 전석근 기획		황	
							1982년 6	"입금님끼는 당나귀끼"	김용락 作 최시영 기획		이	

적유명브렌드

포츠웨어 및 ACTIVE WEAR

inna
ORTS

울산주식회사

시 강서구 등촌동 293-1
이사 김 승 렘

청계

츠센타
로너)

계릴글작

을 지

100

CORNER : 266-7160
상 담 : 633-5101~4



자연이 염어낸 날줄과 씨줄의 結晶!

일신방직은
한울마다 정성을 담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염어낸
섬세하고 오묘한 조화,
끊어질듯 휘날릴듯
만나고 이어지는
날줄과 씨줄의 결정.
이 한울 한울의 결정이 모여
때로는 미풍에 나부끼는
한점 꽃잎인양,
때로는 강풍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한마리 조류인양
불가사의한 힘을 냉습니다.

일신방직은
이 섬세하고 오묘한
자연의 신비를
제품개발의 지표로 삼아
한울 한울 날줄과 씨줄에
정성을 담아 왔습니다.
모든이가 누릴 수 있는
의류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제품

- 민 AII • 화염AII • 흰방AII
- 면직물 • 화염직물 • 흰방직물

新紡織株式會社
社長 金英浩

TEL. 793-3701~4, 794-5206~9